

진학교사들과 함께하는 2014 대입 성공 프로젝트

① 입시 포인트

2014학년도 대학 입시는 선택형 수능능력시험 도입 등으로 더 복잡해졌다. 이로 인해 얼마나 일찍 정확한 정보를 얻어 다각적으로 대비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광주·전남지역 예비 수험생들의 진학을 돕기 위해 광주·전남 고교 진학교사들과 대학 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된 '한들대학입시전형연구회'의 입시 분석과 전략을 연재한다.

선택형 수능 도입... 수시전형 확대

서울 주요대 영어B 반영해 중상위권 수험생 풀림 극심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NEAT 반영 대학 크게 늘어

우리나라 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뉜다. 수시는 일반(논술)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 특기자 전형, 특별 전형으로, 정시는 일반 전형이 있다. 각 전형에는 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나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풀어 나간다.

▷선택형 수능 도입=2014학년도 대학 입시는 수능시험이 선택형으로 개편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외에는 지난해 입시와 거의 같다. 수능시험에서 국어·수학·영어A형과 B형으로 나뉘면서 대학별 수능 반영방법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에서 다소 변화가 있고, 전형 방법이 더 복잡해졌다.

A형과 B형 반영에서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인문계 모집단위는 국어A·수학A·영어B, 자연계는 국어A·수학B·영어B를 반영한다. 또 상당수 대학들은 국어·수학·영어에서 A형을 반영하면서 B형의 선택이 가능한데 B형에 응시하면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영어B형을 필수로 지정했고, A형과 B형을 선택하더라도 B형에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위권 수험생들이 영어B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영어B형에 응시해 좋은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5등급 학생도 A형 1등급을 맞는 경우가 생겼다.(3월 모의평가)

결과, 국어와 수학은 A형과 B형이 인문계, 자연계로 구분되는 계열별 선택시험이고, 영어의 경우는 수준별 선택 시험이 되는 셈이다.

영어의 유형 선택이 어려워지고, 선택의 시점도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9월 수능일 쓰는 시점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영어B 응시자를 추정하기란 대단히 어렵고, 영어 응시자의 비율이 논술전형 최저등급과 맞물려 올해 입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수시모집 선발인원 증가는 서울대가 수시모집을 통해 83%를 모집하면서 수시에선 선발하는 모집단위가 확대됐

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중 수시를 통해 70% 이상 선발하는 대학들도 많아졌다. 정시를 통해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수시에 대한 관심을 학기 초부터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

2014학년도 수시모집 선발인원이 25만1426명으로 전년도(24만3223명)보다 8203명이 늘어나 전체 모집 정원의 66.2%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83%, 중앙대

2014학년도 대입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수시모집(모집인원(명), 비율(%)), 정시모집(모집인원(명), 비율(%)), 계(명). Rows for 2013 and 2014.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제 모집인원

Table with 4 columns: 구분, 대학(교), 수시모집(모집인원(명)), 정시모집(모집인원(명)), 계(명). Rows for 2013 and 2014.

76%, 고려대 72%, 서강대 72%, 성균관대 72%, 한양대 71%, 연세대 69%, 부산대 67%, 이화여대 64%, 경북대 64%, 한국외대 63%, 경희대 61%, 충북대 59%, 동국대 57%, 숙명여대 57%, 전남대 55%, 숭실대 55%, 충남대 54%, 건국대 53%, 아주대 52%, 전북대 49%다. 서울대를 포함해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경향이다.

주요 대학들이 수시모집 규모를 확대하는 이유는 우수한 수험생들을 미리 확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이 중 한 개 대학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탓에 우수한 수험생의 우선 선발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수시모집에서 총원 합격자도 반드시 등록을 하면서 수시모집에서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다.

▷입학사정관 선발도 확대=입학사정

관제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125개 대학에서 4만7606명을 선발했는데, 올해에는 126개 대학에서 4만9188명을 모집한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반영 대학도 지난해 7개 대학 127명에서 올해 27개 대학 66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논술 전형은 덕성여대가 추가돼 29개 대학에서 1만5769명을 뽑는 등 갈수록 수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민기자 한철민·송덕교 교사>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일정

Calendar-style table showing exam dates from 3월 29 to 11월 27, including events like '시험기본계획 발표', '원서내용 변경(취소) 신청', '시험일', '문제 및 정답 이외의 신청', '정답 확정', '채점', '성적통지'.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제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125개 대학에서 4만7606명을 선발했는데, 올해에는 126개 대학에서 4만9188명을 모집한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반영 대학도 지난해 7개 대학 127명에서 올해 27개 대학 66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논술 전형은 덕성여대가 추가돼 29개 대학에서 1만5769명을 뽑는 등 갈수록 수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민기자 한철민·송덕교 교사>

한들대학입시전형연구회

광주·전남지역 고교 진로·진학 지도교사들과 서울지역 대학 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된 대학입시전형 분석 및 자료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모임이다. 한철민 송덕교 교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진로체험' 교육기부

경양초 학생에 패션페인팅 학급T셔츠 제작... 소외이웃 기부도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학과장 김지연) 학생들이 초등학교생들과 함께 학급 티셔츠를 제작하며 패션 교육을 실시했다.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최근 광주 경양초등학교 3학년 1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패션디자인 진로체험 실습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지역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기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생들의 패션디자인 관련 진로탐색과 의상디자인학과 학생들의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실시된 이번 행사는, 의상디자인학과와 교직원학생과 재능교육봉사신청학생 37명이 교육요원으로 투입됐다. 이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패션페인팅 티셔츠 제작실습을 진행했다.

이날 경양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만의 색상과 터치를 조합한 페인팅티셔츠를 학급티로 만들어, 향후 학교 대내외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34년 전통의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는 지역의 대표적인 패션디자인 교육기관으로써 3년전부터 광주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전공탐색을 적극 돕고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경양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패션 티셔츠를 만들고 있다.

있으며, 이를 통해 학과 재학생들의 지역봉사정신 실천과 다양한 실습기법개발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 교육기부 이외에

지적장애인 등 지역의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한 패션디자인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기부를 실천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과기원-과기특성화대학

27일 전형별 공동입학설명회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지스트 오희관에서 과기특성화대학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학설명회에는 지스트를 포함해 카이스트, 디지털스 등 3개 과기특성화대학이 참여해 2014학년도 대학입시의 각 전형별 지원전략 및 변화된 대입 전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스트의 경우, 2014학년도 학사과정 신입생은 지난해보다 60명 늘어난 170명(수시 150명·정시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적 배려를 위해 수시모집에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을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지스트 오희관 다산홀에서 진행되는 입학설명회에 이어, 각 대학별로 상담실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지스트가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광주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이공계 분야에 관심을 가진 우수 인재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창조적인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입학설명회에는 이공계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지스트 홈페이지(www.gist.ac.kr)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지스트 입학사정관팀 062-715-2952~6.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박종오 전남대 로봇연구소장 과학기술훈장

마이크로로봇 기술 산업화·세계화

박종오(57·사진) 전남대 로봇연구소장이 현직에 있는 과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과학기술훈장을 받았다.

22일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과학의 날 행사에서 박종오 로봇연구소장은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수상했다. 과학기술훈장은 총 5등급으로 나뉘는데 박종오 전남대 로봇연구소장은 2등급인 혁신장을 받았다.

박 교수는 마이크로로봇 기술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다양한 지능형 산업용 로봇 및 서비스로봇의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 2001년 세계최초로 대장내시경로봇 개발에 성공해 2005년에는 산업화에 이르렀으며, 200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알약형 초소형 캡슐내시경을 개발했다. 이어 2010년 세계 최초로 혈관치료 마이크로로봇을 이용한 살아있는 동물실험에 성공했으며, 암치료를 목적으로 박테리아를 이용한 나노로봇 국제원전특허를 확보했다.

박종오 소장은 "대장 내시경, 캡슐내시경, 혈관 마이크로로봇 등은 모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포기한 기술"이라면서 "과학기술은 항상



인류를 위한 일"이라며 도전의식을 갖고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운 연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무등빌딩임대' (Mudeung Building Rental).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uilding and text describing its location, facilities, and contact information (062-222-0527).

Advertisement for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Promotes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a property listing for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with details on size, price, and features.

Advertisement for '유)그랜드대부' (YU Grand Daebu). Promotes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a '최저이자 명품대출!' (Lowest interest premium loan!) and contact information (062)228-0114).

Advertisement for '가은 공인중개사' (Gaeon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s services like '무인텔 급매' and '전남 지역 토지 구함' with contact details (010-8289-8549).

Advertisement for '중앙공인중개사' (Jungang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s services like '임대입 하실분' and '대지.전.답' with contact details (062-374-5945).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Promotes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 and contact information (011-602-2532).